

귀촌일기 - 농촌생활

아침을 열며

박찬규
एको특수가치연구소
이사



기온이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농촌의 여름에서는 농부들의 뜨거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온다고 하여 물관리에 대비하기도 하였는데 불과 며칠을 못 넘기고 장마가 지나가 버렸다. 짧은 장마가 지나고 불볕더위가 계속되더니 벌써부터 물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

지금은 모내기가 끝나고 모가 활착을 할 시기라서 물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물빠기를 해놓은 논이 많아 일정 시간 후에는 다시 물을 채워야 하는데 조만간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시기에 비소식이 있어 다행이다. 농촌생활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농부가 기를 쓰고 농사에 전념한다고 해도 기후와 온도 그리고 햇빛과 바람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농사일이 어려워진다.

귀농·귀촌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농부로 한 발짝 내딛는 날이 와도 이토록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으면 농촌생활에 한계를 느낄 수 있다. 모내기가 끝나고 7월이 되면 벼가 자리를 잡아 뿌리를 내리고 포기가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논농사에서는 포기가 실하면

쌀 수확이 많아진다고 하여 농부들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조바심을 가지고 논을 찾는다. 논에서 씩씩하게 자라는 벼를 보는 농부의 마음은 이때가 가장 행복하다.

농촌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계절을 꼽으라면 바로 늦은 봄과 초여름이다. 이때는 농번기로서 1년 농사를 준비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는 계절이며 남도에서는 논농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모내기가 끝난 논을 관리하는데 총력을 쏟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들판으로 가서 벼가 자라고 있는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이양기로 심어도 군데군데 빠져있는 부분은 직접 모를 심어주는 가중도 해야 한다. 벼포기가 늘어날 수 있도록 물빠기 작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요즘처럼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은 논독을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지치기 일수이다. 조금만 걸어도 땀으로 범벅을 하니 이렇게 힘든 작업인 줄 모르고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그래서 모든 일은 체험이 필요하다. 관심있는 업종을 체험하고 난 후에 자신감을 갖고 창업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듯이 농업도 마찬가지이다.

논지를 임대하여 2년 정도 농사를 지어 본 후에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날씨의 변화가 심할 때에는 육체적인 피로감이 더해서 농사일에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라도 1년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필

자도 ‘농촌생활이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는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귀촌하여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시기에 맞지 않은 식목을 하여 나무를 고사시키고 우렁이 농법이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 방법이라기에 시행했다가 모내기가 끝나자마자 우렁이가 벼를 먹어치워 모내기를 다시 하기도 하였으며, 적기에 물빠기 작업을 소홀히 하여 벼포기가 불어나지 않아 벼 수확이 줄었던 적도 있었다. 벼가 자라는 시기에 맞추어 그에 걸맞는 비료를 주어야 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시의 직장생활보다 쉽다는 생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사는 절대로 쉬운 영역이 아니다. 자연환경이 매년 변하고 기후변화가 심한 요즘에는 과거의 농사경험도 중요하지만 제 때에 맞추는 실행도 중요하다. 요즘의 농촌 들판은 벼가 포기수를 늘리면서 안정되게 커가는 모습이 풍요롭고 올해도 풍년을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농민들은 여름을 맞이한다.

농촌생활은 농사철에는 정말 바쁘게 지나지만 농사가 끝난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그래도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 어려움을 견디고 살 수 있다. 요즘처럼 국내의 경기가 불확실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고 폐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촌은 본인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부지런히 일에 전념한다면 올해도 풍요롭고 건강한 생활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일본 비디오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세가 캐릭터 소닉 더 헤지혹이 16일 도쿄 시부야 구에서 열린 첫 공식 매장 오픈식에서 전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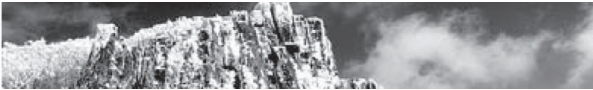
AFP 연합뉴스

서석대

해태는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다른 말로 ‘해지’라고 불렸다. 중국 한나라 때 양부가 지은 ‘이물지(異物志)’라는 책에 해치는 이렇게 묘사됐다. “동북 지방의 황량한 땅에 어떤 짐승이 사는데 이름을 ‘해지’라 한다. 뿔이 하나이고 성품이 충직하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자를 들이받고, 사람들이 서로 따지는 것을 들으면 옳지 못한 자를 문다”고 적었다. 시비와 선악을 가려 불의를 응징하는 동물이 해태다. 고대 중국에선 사법기관과 사법 관리의 상징이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 관복에 ‘해태’ 흉배(胸背)를 달았다. 법을 만드는 국회는 물론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앞에는 해태상이 놓여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응보적 정의를 담은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다. 기원전 1755~1750년 고대 바빌로니아 왕 함무라비가 제정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문서 형식을 갖춘 법률)이다. 282개 조항으로 구성된 돌비석에 아카드어로 새겨져 있다. 법전은 형법, 민법, 상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법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강조했다. 이 법전보다 300년 앞선 성문법이 우르 남무(Ur-Nammu)의 법전이다. 수메르어로 기록된 법전

법 앞에 평등하라



에는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을 핍박할 수 없도록 했다. 금전적인 보상과 처벌 수위를 적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은 1919년 4월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다. 총 10개조로 이뤄졌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고, 제1조에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헌장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11일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총 8장 58조의 대한민국 임시 헌법이 만들어졌다. 1948년 7월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은 임시 헌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국가 체제를 분명히 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버티기’ 중이다.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강제 구인에 불응하고 있다. 누구나 지켜야 할 대한민국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는게 측근들이 주장하는 불용 사유다. ‘법 기술’이 안 통하니,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지. 망신스러운 것은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 같다. 17일은 제77주년 제헌절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김선옥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재해보험, 이름만 ‘안전망’ 이어선 안 된다

고수온 피해 반복 제 역할 못해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으로 전남지역 양식어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 보전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수온 피해는 심화되는데 보험 가입률은 40%에 그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990개 어가에서 574억 원 규모의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했다. 여수와 고흥 등 10개 시·군에서 조피볼락, 광어, 전복 등 주요 어종 2천580만 마리가 폐사한 것이다. 올해도 상황은 심각하다. 고수온 예비특보 발령 시점이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졌고, 수온도 평년 대비 1도 이상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재해보험이 고수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1년짜리 소멸성이고, 고수온 보장을 받으려면 별도 특약을 들어야 한다. 특약 가입 시 보험료는 2배 이상 상승하고, 손해 보상 청구가 이어질 경우 할증이 붙는다.

일부 품종은 지방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자부담이 필요해 어민 입장에서는 가입 자체가 부담이다. 실제 고수온에 취약한 조피볼락의 보험 가입률은 22%에 불과하다.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실질적 보장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다. 정부와 전남도는 보험료 지원 확대, 품종 추가, 자기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 어민들의 체감도는 낮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한 보험 가입 독려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남도는 현재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출하, 긴급방류, 현장 지도 강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반복되는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상 체계 구축이다. 양식 어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과 함께, 사후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보험이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하려면, 어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함평 표산고분군, 마한사 규명 계기되길

국가유산청 17일 발굴 결과 발표

전라남도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이 서해안과 영산강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유력 세력의 묘역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고분군의 주인공들이 고대 마한 세력으로 백제는 물론 중국·일본과도 긴밀한 교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 3국과 어깨를 겨뤘던 마한의 재발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6일 국가유산청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가 발표한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산고분군의 장고분은 일본 규슈에서 보이는 무덤 형태와 비슷했다. 전형적인 일본계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토기와 중국 남조 시대 동전문양토기, 백제계 유물 등이 출토됐다고 한다. 특히 연구진은 표산고분군이 사전 측량과 설계가 이뤄졌고, 고분 둘레에 축조된 도랑과 지상의 석실이 마한 분구묘의 대표적인 구조라는 것을 밝혀냈다. 장기 보존과 구조 안정성을 고려한 수준 높은 공법도 적

용됐다고 한다. 유산청은 17일 오전 발굴 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마한은 한반도 서남부에 분포했던 54개 소국의 연맹체로, 삼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백제와 후속국가의 기원과 뿌리를 이해하는 열쇠로도 중요하다. 최근 학계에서도 백제가 마한에서 성장한 세력이 중심이 됐고, 마한의 유민과 문화를 수용하면서 국가를 형성했다는 연구결과를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마한은 북방·동남부를 중심으로 한 편향적 서술로 그 실체가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동아시아 고대사를 밝혀낼 일본 열도 초기 세력과의 연계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역사학계는 이번 표산고분군의 발굴을 계기로 한반도 서남부에서 활약했던 마한의 실체와 역사가 규명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역사 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번영했던 마한에 대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마한사는 단순한 고대 부족사의 복원이 아니고, 한국 고대사의 다원성을 회복하고 백제와 호남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